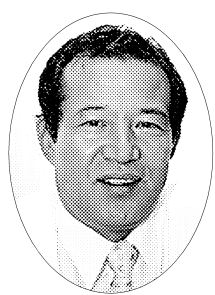


화요세평



문정기

광주·전남과총부회장
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, 보통사람으로
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얘기이다.
국제+과학+비즈니스를 벨트로 딱 묶어
놓는다는 뜻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
없다. 사전에 안 나옴뿐 아니라 검색엔진
에서 결과도 시원찮다. 외국어로 바꾸면
더 더욱이 마땅찮다.

지방마다 사할 건 유치전 가열

이 용어 자체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
5번째에서 비롯됐고 잘못된 공약은 안 지
켜도 된다는 대통령의 어긋난 표현 때문에

세종시와 함께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딜레
마 중의 하나가 되었다. 그리고 이제는 과
학 종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
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돼 어찌 보면 과학
의 일반화,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
겠다.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.

원래 과학이란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상
반되는 개념이다. 애당초부터 과학이 나아
갈 길과 비즈니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를
뿐 아니라 목표도, 방법도 하나도 같은 게
없다.

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떠나 실질적 문제
로 가보자. 무엇보다에 내로라 하는 전국
의 주요도시가 벨트 유치에 위해 소위 사
할을 걸 때세인가. 요술단지처럼 3조5,000
억 투자로 213조를 생산하고 고용효과가
136만 명에 이른다니 그 수치만으로 지자
체에 주는 매력은 정말이지 황금알을 낳는
거위가 될 것이다. 이제 바로 국제과학비
즈니스벨트의 꿈이라라. 매력덩어리인지라
지자체에 정치인들도 덩달아 끼어들어
“우리가 최적지”를 외치며 전국이 난장판
이 되고 말았다. 그 싸움판은 크케는 영남-
호남-충청, 자세히 보면 대구-경북, 광주-
전남, 대전-충남과 같이 시·도가 짝짓기

로 끼어 있고 최근 과천-경기까지 가세해
전국 3~4개의 블록이 된다. 여기에 천안,
포항, 새만금까지도 합하면 더욱 문제가
복잡해진다.

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게 정치적 구도와
도 똑같이 걱정이다. 과천-경기는 수도권,
기타는 지방, 지방에서는 호남, 영남. 충청
으로 동서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깃발을 쏘
으며 한다. 하나로 합쳐도 선진국의 몇 십
분의 일 내지 몇 백분의 일 정도인데 사본
오열하는 모양이 참으로 심란하다. 바야흐
로 곧 유치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서로간의
입장차가 커서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
보인다. 담당공무원이 극도로 말을 아끼고
주요 언론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
걸 보면 얄만해도 핫이슈는 핫이슈인가 보
다. 필자가 그들을 대신해 반대논리를 내
보고자 한다.

국력의 70%가 서울·경기인데 연구단
지도 이미 관성을 잃었다. 부화뇌동하지
말자, 새로운 국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.
떠든다고 될 일도 아니다. 함 없으니까 밀
어 붙여 보자는 것인가, 4년 전에 1등 후보
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등이
다. 끝으로 이 사업에 진정으로 관심과 열

정,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다음 질문에 스
스로 답해 볼 것을 권한다.

과학적 시각으로 입지 선정돼야

과연 우리에게 충분히 동원 가능한 과학
인력이 있는가, 동일한 자원과 인력 수준
으로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른 건 없
는가, 현시점에서 국내외 과학자나 연구소
의 정주(定住)여건은 어떠한가, 기초과학
에 대해 어느 정도 투자했는가, 과연 과학
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, 어느 정도의 경험
과 실적이 있는가, 지역민의 삶을 향상하
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, 국내외의 유
사한 실패/성공사례를 충분히 학습하였는
가, 타 지역이나 외국과의 차별성에 대해
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.

이제 곧 4월이 시작된다. 가족이나 나라
가 시끄럽고 바다가 요동치며 중동이 불덩
이이고 하늘에는 구제역 바이러스다 방사
능 낙진이다 하여 지구가 온전치 못한다
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가 이렇게밖에 될
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다. 열리었이 얘기
한 잔인한 4월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
절하다.

독자광장

치매환자 위치추적시스템 도입

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, 고령화 사
회 진입으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, 2010
년 치매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 중
13.4%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.

112신고 사건 일부를 차지하는 것 중의
하나가 치매로 인한 미귀가자 신고이다.
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보호자가
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집을 나간 후 수
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
많다.

지금까지는 치매 진단자에게 각 가정
에서 치매 환자의 행방불명 방지를 위해
주로 환자의 이름, 주소 등 연락처를 적은
팔찌나 이름표 등을 손목이나 목걸이에
착용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.

이 경우 치매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연
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 또 치매환자
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단을 분실하는
경우 가족을 찾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.
GPS를 이용한 치매환자 위치 추적 시
스템을 활용할 경우 배회하는 치매환자
의 위치를 파악하여 길을 잃은 경우나 응
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를
취할 수 있으며,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낙
상사고 파악 및 응급대처에 큰 도움이 될
것이다. /함평경찰서 김주영

청소년 흡연에 부모 역할 중요

아직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
소년기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성
인 흡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질병 발생
과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며, 니코틴 중독
으로 인한 성인흡연자로 이어질 확률이
높았다.

청소년들은 최초로 흡연을 경험한 이
후 또래의 관심 등에 의한 사회적 강화,
심리적 독립감의 경험 등을 통하여 지속
적인 습관을 하게 됨으로써 흡연이 하나
의 습관행동으로 형성하게 된다.

따라서 사회적으로는 흡연예방교육이
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
흡연예방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서
실시해야 하며, 담배가격 인상, 19세 미만
자에게 판매관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
연행위 감시, 공영방송 및 대중매체에서
의 흡연 장면 금지 등의 사회적인 노력이
필수적이다.

청소년 흡연은 흡연하는 부모나 또래
에게서의 모방에서 시작되며 호기심이
담배를 피우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
도 한다.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은 시작하
기 전에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하는 것
이 중요하다. /광주지방경찰청 27동대 박병웅

기자수첩

야권연대 기준과 원칙이 우선이다

‘보수는 패배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
로 망한다’는 말이 있다. 4·27 재보궐
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협상이 난항
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의 의
미가 더욱 절실해진다.

지난해 6·2지방선거에서도 확인 했
듯이 야권연대는 야당의 화두다. 특히
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
더욱 그렇다.

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4·27 재보
궐선거에 출마할 김해를 후보 단일화
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
못하고 있다. 시민단체가 중재안을 내
고 22일까지는 시간으로 잡고 협상을
재촉하고 나섰다. 국민참여당은 시민
단체의 중재안인 시민단체의 여론조사
50%와 국민참여경선 50%안에 대해 부
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. 여론조
사 100%안을 고수하고 있다.

선거때면 터져 나오는 야권연대를
바라보는 국민적 시선도 따갑다. 그때
그때 지역과 인물에 따라 다른 협상방
법 때문이다. 지난해 7·28재보궐선거
에서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
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파문을 남
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, 2위를 기록한
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참여당 후
보 간 2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
다. 결국 장 후보가 천 후보에 앞서면서
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.

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
사 단일후보 선정에 있어서는 민주당



강병운
서울취재부장

김진표 후보와 참여당 유시민 후보가
맞붙었다. 국민참여경선 50%와 여론
조사 50%로 실시된 경선에서 유시민
후보가 0.96% 앞서 야당 단일 후보로
선정됐다.

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선정 이후 결
국 민주당 후보가 아깝게 패했으나 당
내 공감대가 형성됐다. 국민참여경선
50%와 여론조사 50%가 가장 바람직한
경선방법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.

이에 앞서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위
해 순천지역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.
통론 양보를 실천한 셈이다. 당리당락
만을 고집하는 국민참여당과 대비되는
부분이다.

내년 총선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야
권연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차체에 야권연대 협상에 대한 확실한
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.
또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
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.

야권연대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것
보다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야당의
모습에 국민들의 신뢰가 집중되는 것
은 당연한 일이다.



장수의 비결

임표는 술도 담배도 멀리했는데 63세
에 죽었고, 주운래는 술을 즐기고 담배는
멀리했는데 73세에 죽었다.

모택동은 술은 멀리하고 담배를 즐겼
는데 83살까지 살았고, 등소평은 술과 담
배를 즐겼는데 93세까지 살았다.

그리고 장개석 군대의 부사령관을 지
낸 장학량은 술과 담배, 여색을 모두 가
까이 했는데도 103세까지 살았다.

현재 중국에는 128세나 되는 최고령
의 할머니가 살고 있다. 그 할머니를 만
난 인민일보 기자가 물었다.

“할머니, 건강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?”
이 할머니의 대답에 10악이나 되는 중
국인 모두가 쓰러지고 말았다.

“응, 담배는 건강에 나쁘니까 피우지

마! 그래서 나도 5년전에 끊었어. 하지만
섹스는 적당히 즐긴다네.”

제비의 해설

어느 제비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
해성사를 했다.

제비 : 신부님, 옆집 부인과 거의 큰일
날 뻔했습니다.

신부 : 그래, 간음을 하셨나요?

제비 : 아뇨. 그냥 문자뜨기만 했습니다.

신부 : 문자뜨는 거나 벌고 하는 거나

다들 게 없습시다. 마음을 어떻게 가졌
느냐가 중요하합니다. 속죄의 의미로 성모
송 3번 외우고, 자선함에 2만원을 넣으
십시오.

고해성사를 마친 제비는 죄를 뉘우치
며 성모송을 3번 외운 후, 자선함에 다가
가서 그냥 손만 문자뜨는 것이었다.

이상하게 생각한 신부가 물었다.

신부 : 왜 속죄금을 넣지 않고 손만 문
지르세요?

제비 : 신부님 말씀이 문자뜨는 거랑
넣는 거랑 같다고 하셔서...

오늘의 운세



子

48년생 소문을 너무 믿지 말고 자신
을 믿어라. 60년생 분명하게 의사표
현을 하라. 72년생 넓은 곳에서 행운
이 생기겠으니 야외로 나가 보라. 84
년생 뜻밖의 약속이 생기는 날이다.



卯

39년생 모든 화는 언행으로부터 생기
는 법. 51년생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
정신이 없다. 63년생 생활의 여유가
생기고 마음 편한데 집. 75년생 다짐
도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.



辰

42년생 마음이 상하면 일도 잘 되지
않는 법이다. 54년생 동분서주 바쁜
게 하루를 보낸다. 66년생 새로운 희
망이 생 솟는 날이다. 78년생 스트레
스 받지 말고 넘길 것은 넘겨라.

巳

45년생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
지켜야 한다. 57년생 마음속에 꽃이
활짝 피는 날이다. 69년생 뜻밖의 귀
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. 81년생 작
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.

午

49년생 조건만을 보지 말고 다양하게
보라. 61년생 작은 정성이 먼 훗날까
지 영향을 미칠 때이다. 73년생 눈치
껏 살피고 다가가야만 한다. 85년생
진실만은 숨기고 시치미를 떼라.

未

40년생 김조심을 해야 할 때. 외출 자
제. 52년생 주변의 도움 받아 목표를
달성하는 격이다. 64년생 행운의 여
신이 다가오니 준비하라. 76년생 패
기는 좋지만 방심은 금물이다.

申

41년생 상대방 자존심도 한계가 있는
법. 53년생 역성 들어줄 필요는 없을
듯. 65년생 호전되니 인내와 노력을
게을리 하지 마라. 77년생 직장에서
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.

酉

43년생 서로의 대립은 서로가 망하는
길이다. 55년생 남들이 경계하는 자
는 일단 멀리하라. 67년생 인간적인
면을 부각함이 좋다. 79년생 눈물과
감정이 많아 해가 될 때도 있다.

戌

46년생 선부른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
킨다. 59년생 미련 일을 처리하는 하
루가 된다. 71년생 생각지도 않은 기
회가 도래한다. 83년생 매사에 겸손
하고 예치롭게 보여야 유리하다.

亥

50년생 잠시라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
다. 62년생 확장보다는 현상을 유지
하는데 힘써라. 74년생 성의를 보아
서도 곧 좋은 소식이 온다. 86년생 아
름다운 데이트를 할 시기이다.

丑

44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寅

47년생 선부른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
킨다. 59년생 미련 일을 처리하는 하
루가 된다. 71년생 생각지도 않은 기
회가 도래한다. 83년생 매사에 겸손
하고 예치롭게 보여야 유리하다.

卯

48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辰

49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未

50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申

51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酉

52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戌

53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亥

54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子

55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丑

56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寅

57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卯

58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辰

59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未

60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申

61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酉

62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戌

63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亥

64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子

65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丑

66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寅

67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卯

68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辰

69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未

70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.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
이미지가 높아진다. 68년생 다른 사
람을 위하면 보답을 받는다. 80년생
아쉬움속 동료들과 화합하라.

申

71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
다